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은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병동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1월 병원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병원이 희한하게 건설되었다고, 병원으로 들어서면서 마주보이는 외래병동의 앞면을 사람의 눈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입원실병동 외벽에는 시력검사표를 붙이었는데 외형만 보고서도 안파전문병원이라는것이 알린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집중되어있는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곳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



로 설계단위, 시공단위, 운영단위들 사이의 3자합의를 강화하면서 건설한 결과 미학성,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흠풍을 끌어놓은 의료봉사기지가 일떠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에 꾸려놓은 안경상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눈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 할수 있도록 안경상점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안경상점의 진열대들마다에 남자안경, 여자안경, 어린이안경, 색안경, 자전거용안경, 운동용안경, 수경을 비롯한 갖가지 안경들과 부속품들, 광학기재들이 꽉

차있는데 상점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정 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안경상점에 시력검사실, 교정실, 가공실도 훌륭히 꾸려놓음으로써 안경봉사의 과학성, 친절성,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이 책임성과 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 의료봉사활동을 잘할데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설비들과 비품들을 애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에 대한 문제 등 병원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당 단위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안경테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술공정을 꾸릴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

과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정신을 당풍으로 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일떠세운 병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파시하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한 8진설국과 설계단위의 일군들,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최근 몇년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들을 하나씩 일떠세운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도태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파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문을 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는데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병원운영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10월말에 개원식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강국건설의 지름길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지키며 번영을 이루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앞길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끈질긴 초강도제재, 전대미문의 군사적압살, 횡포무도한 『제도봉파』 책동속에서도 조선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강국건설의 진로로 추호의 변침도 없이 출기차게 나아가며 비약하고 있다.

김정숙평양체육공장,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 천리마제강련 합기업소, 순천화학련합기업소, 금성드라프트공장,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 통악산샘물공장, 평양과산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천리마건재종합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보건산소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정성제약종합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들에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제품들이 다양생산되고 있다. 원홍땅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철령아래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일망무제한 파일바다가 펼쳐지고 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기어이 제힘으로 강국을 건설하려는 자존심,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물리치고 자력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간다는 배짱이 다 계단, 다발적인 성과와 기적을 낳고 있다.

자력자강이 강국건설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현실로 펼쳐지고 실천으로 확증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강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자기의 힘과 기술, 지원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자강력이다. 자력자강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뛰고나가게 하는 기적과 비약의 힘이다.

공화국의 자강력은 지난 세기 50년대 전후복구건설 때에는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만들게 하였다. 면 오늘날에는 세계를 따라앞서기 위하여 만리마의 속도를 낳게 하고 지구판축위성을 만들게 하는 기적과 사변을 창조하고 있다.

하다면 자존심을 높여주고 자기 힘을 더욱 강하게 하는 자강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가 국력경쟁에서 앞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은 자강력의 원천이다.

지난해 지하전동차가 개발되었을 때였다. 현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형태와 색깔, 기술적특성, 의장품에 이르기까지 전동차의 구조와 성능, 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비롯한 개발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하신 그이께서는 얼마후인 11월 어느날 지하전동차시운전을 보시고 자강력의 원천은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것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라고 하시였다.

지하전동차개발자들의 품과 마음에 자력자강의 정신이 꽉 차있었기에 그들은 세계적으로 불과 10여개 나라에서만 만든다고 하며 그것도 대부분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여 자기의 것으로 내놓는다는 나라들을 암도하여 시작부터 마지막 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것이다.

인민군대에서 성공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도, 생산설비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여 국내원료로, 자체로 만든 기계로 생산하는 평양여린이식료품공장의 제품들도 모두 개척자, 창조자들이 체현한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높은 자랑찬 결과물인 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현지도의 길에서 자력으로 만든 비행기를 보시고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인데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시험비행도 하시고 국산화, 현대화실현의 동음이 울리는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락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자력자강의 정신을 기둥처럼 세

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는 사람들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의 국방공업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자기식의 위력한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체들을 마음먹은대로 개발하는 강력한 국방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지난날 해방조선의 첫 기슭에서 울린 자강력의 기관총총성은 오늘 세계의 정치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체조선의 수소탄폭음으로 장쾌하게 이어졌다. 적대세력이 끊임없는 핵전쟁위협과 악랄한 제재봉쇄를 집요하게 추구하지만 공화국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가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불패의 군사강국, 우주강국,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지난 2월 새로 개발된 반땅크유도무기 시험사격 때였다. 그날 현지에서 유도무기의 최종시험사격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생산부문에서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여도 우리의 식으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우리 군인들의 체질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투쟁 또 투쟁하며 자위적핵억제력을 포함한 국방력강화에서 더 큰 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국력경쟁의 시대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지금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국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뒤지면 약소국으로 떨어지고 이기면 강대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된다. 국력경쟁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자기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분야는 물론 무기개발과 전혀 무관한 인민생활필수품 지어는 일반식품과 어린이들의 놀이감까지도 제재항목에 포함시키며 초강도제재에 광분하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 초음속비행기의 속도,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는 자력자강이 강국건설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철리로 새겨주고 있다.

리성심

북변의 새전설

엄혹한 재난을 당한 함경북도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송도원 국제소년단 앙소에서 애영생활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경흥군, 경원군, 온성군을 비롯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이 뜻밖에 덮쳐든 자연재해로 부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마음속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송도원 국제소년단 앙소에서 즐거운 애영생활을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진두지휘하시며 아이들의 글소리, 노래소리 울리던 학교와 타이소,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하시고 그곳 학생소년들이 학습을 중단없이 진행하며 미진된 학습과정안을 빨리 따라잡도록 교구비품과 기자재, 학용품보장을 잘할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신 그이께서 오늘은 학생소년들의 동심에 얹혀있는 사소한 그늘까지도 말끔히 가셔주시려고 베푸신 다심한 사랑에 온 나라 인민들이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학생소년들은 억만금의 금은 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라고 하시며 후대중시의 정치를 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은 한량없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대회를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히 조직하도록 하시고 봄소대회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하시여 온 나라 학생소년들을 축복해주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이르는 곳마다에 아이들을 위한 유희장과 물놀이장, 궁전과 애영소들을 세우도록 하시여 새 세대들이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다심한 정을 기울이고 계신다.

그이의 다심한 후대사랑속에 육아원과 애육원, 육류아동병원, 송도원 국제소년단 앙소,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이 희한한 모습을 드러내어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커고 있다.

지난 7월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 원아들의 보금자리로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그들은 북부전선에서 동해기슭의 아영소로 떠난 아이들이 즐거운 애영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완공된 살림집과 학교마당에 들어서게 하자고 하면서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의 애영생활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감동깊은 전설로 길이 전해질 것이다.

온 나라의 깊은 관심속에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의 애영보장을 위한 사업이 복구전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아이들에게 차례질 생활용품이 마련되고 애영생활이 한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수 있게 하기 위한 애영일파표도 세워졌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 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으며 격정의 눈물을 쏟은 재해지역 인민들이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품이 얼마나 은혜롭고 따사로운가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북부피해지역의 인민들은 세상에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많아도 그 자식들이 국가적조치로 애영소로 간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런 일은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변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재앙의 파도가 몇천만번 다시 훑쓸어든다고 해도 그이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래일을 암고 산다고 마음의 진정을 터치고 있다.

얼마전 애영을 떠나면서 재해지역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이의 품은 우리의 집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이 소식은 북부전역의 곳곳에 속속 전해져 총포성없는 대격전을 벌리고 있는 피해복구건설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들은 북부전선에서 동해기슭의 아영소로 떠난 아이들이 즐거운 애영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완공된 살림집과 학교마당에 들어서게 하자고 하면서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하순 본격적인 기초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소총살림집들과 2 500여동의 단층살림집들의 끝을 끊어낸다. 이 나날 살림집들의 외부, 내부미장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어 각각 65%, 25% 계선을 돌파하였다.

지난 9월 하순 본격적인 기초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고 미장공사의 70% 이상을 해제하였다. 연사군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도 불가능을 모르는 단숨에의 기상으로 16동에 504세대의 3층살림집골조공사를 제기일에 끝냈다.

922건설돌격대, 려명거리

건설돌격대,

공화국의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서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소총, 단층살림집골조공사를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되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달려온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인민들이 선착적인 건설대상인 살림집건설에서 자랑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5일 현재 북부피해지구의 6개 시, 군들에서 200여동의 소총살림집들과 2 500여동의 단층살림집들의 골조공사가 끝나게 결속되었다고 한다. 이 나날 살림집들의 외부, 내부미장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어 각각 65%, 25% 계선을 돌파하였다.

지난 9월 하순 본격적인 기초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고 미장공사의 70% 이상을 해제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백두산강군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파시며 자기들이 맡은 860여 동

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을 벌려 안아온 자랑찬 승전포성으로서 10월 말까지 전반적인 살림집건설을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조선인민군 북부피해복구전투지휘부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인민무력성과 사회의 책임일군들은 인민군부대들과 각 시공단위들에 살림집건설파제를 명백히 분담한데 기초하여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현장까지 전진공급하기 위한 수송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었다.

록해운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세멘트하선능력과 철도통파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지난 10월초부터 6개 시, 군 살림집건설현장에는 매일 평균 1만t 이상의 세멘트가 공급되었다.

군인건설자들은 백두산강군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파시며 자기들이 맡은 860여 동

에 4 40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결속하는 빛나는 전파를 거두었다. 회령전역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혁사의 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애국충청의 마음을 안고 3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 760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고 미장공사의 70% 이상을 해제하였다. 연사군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도 불가능을 모르는 단숨에의 기상으로 16동에 504세대의 3층살림집골조공사를 제기일에 끝냈다.

922건설돌격대, 려명거리 건설돌격대, 백두산강옹정년 돌격대, 618건설돌격대,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 청천강-평남관개 물길건설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북부전역에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할 충천한 각오를 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맡은 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단숨에의 기상으로 북부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기적 창조

지금 제13차 인민체육대회 수십개 종목별 경기들이 평양과 지방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각 체육단들은 물론이고 각계층 대중속에서 선발된 남녀 선수들이 출전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는 말그대로 전국, 전민이 다 참가한 시합이라고 볼수 있다. 온 나라를 휩쓰는 체육열기의 반영이고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현실이 비껴 죽도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체육은 오늘 전사회적으로 대중화, 생활화되었다. 그리고 전문체육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종목선수권 대회, 지역별 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에서 조선선수들의 새로운 체육신화가 태여나고 있다.

최근년간 체육부문에서의 팔목 할만한 변화와 놀라운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원대한 구상, 현명한 렇도의 사랑찬 결실이고 국가의 체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표시이다.

공화국을 가까운 앞날에 체육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도이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근로자들이 건강한 체력을 소유하고 문명생활을 향유하며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체육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도록 하자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체육강국은 체육으로 나라가 흥하고 체육으로 강한 나라이다. 사회적으로 체육활동이 적극 장려되고 전민이 활기와 향민에 넘쳐 살고 일하는 문명한 나라,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메달로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나라가 체육강국이다.

《내가 로동일에는 우리 교원, 연구자, 의료일군들과 한

체육강국의 래일을 본다

데 모여 배구경기를 하며 퍼로를 가지고 휴식일에는 체육공원에서 동네 주민들과 겨루기를 하며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이제는 굳어진 생활이고 일파이다.

지난 9월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배구종목경기에 참가하였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병원 김웅현연구사(55살)의 토로이다. 전사회적으로 체육은 이렇게 대중화, 생활화되고 있다. 어디 가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직업과 직종, 기호와 취미, 체질에 맞는 다양한 종목을 택하고 체육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강국을 건설하자면 온 사회에 체육분위기를 세우고 체육을 대중화하여야 한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자면 부문별 체육경기도 하여야 한다

고, 나라의 체육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학교체육과 군중체육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침대로 전민이 대중적인 체육활동에 광범히 참여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며 보람차고 희열에 넘친로 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교체육과 같이 소학교, 중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앞날의 체육강국을 떠메고나갈 전도유망한 새싹이 움트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은 국제무대에서 패권을 다투는 경쟁으로 하여 전쟁마음가는 포성없는 대결, 국력상징의 하나로 일컫는다. 오늘날 세계체육계에서 《체육정치》, 《체육산업》이라는 날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 건설구상에는 나라의 전문체

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도록 하시려는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비상한 결심과 의지가 어리여 있다.

체육인들은 체육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있는 기수라고,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뿐이며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는 것은 체육인들의 성스러운 임무라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그이께서는 체육인들앞에 나서는 파업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훈련장, 경기장들을 찾으시고 축구, 배구, 활쏘기, 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과 훈련을 보시면서 체육인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감독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 자기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창조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 국가적인 경기대회들을 조직진행하고 훈련경기, 겸열경기, 도전경기, 래경기를 많이 조직하여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할데 대한 문제, 체육을 과학화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그이의 가르침은 체육강국을 건설하고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고 있다. 여러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일일이 만나시여 경기성과를 치하도 하시고 너자축구선수들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너자축구선수들이 되라고 고무격려도 하시고 체육인들에게 경기와 훈련에 필요한 기재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두터운 보살피심은 그들이 결승주로를 달리게

하는 우승의 힘과 기적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너자동아시아컵 경기대회, 제17차 아시아마라ソン선수권대회,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제30차,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조선선수들이 거둔 우승의 비결인 것이다.

시상대의 높이하자 조국의 높이이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의 아들딸들은 일신의 명예보다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련이어 쟁취하고 있는 조선선수들의 경기전적을 두고 세계언론들은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조선선풍이 불고 있다》, 《조선은 이겨도 크게 이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5월1일 경기장과 김일성경기장 전면적으로 개선, 양각도에 종합적인 체육촌건설, 평양국제축구학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곳곳에 로라스케트장, 배구장, 농구장, 정구장을 갖춘 체육공원건설, 체육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은 실지 경기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북은 머지 않아 체육강국이 될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일도록 하시여 사회전반이 체육문화생활로 활력에 넘치도록 하시고 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와 기상을 떨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렇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체육으로 흥하고 체육으로 강대한 체육강국의 결승선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광윤



인기를 끄는 특색있는 전문관광들

- 김춘희 국가관광총국 국장과 나눈 대담 -

기자: 국가관광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있는 전문관광들이 공화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춘희: 우리 국가관광총국에서는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그들이 좋은 관광계절에 우리 나라에 와서 보다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색있는 전문관광들을 개발하고 봉사를 짜고 있다.

실례로 무더운 여름철 바다가에서 진행하는 파도타기와 헤염,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얀 모래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얼마전 외국인축구애호가

서 파도타기와 헤염,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얀 모래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얼마전 외국인축구애호가들이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는 과정에 창작사의 축구애호가들과 축구경기를 진행하였는데 열기띤 응원속에 승부를 다투면서 체력도 단련하고 서로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들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여러 축전행사들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8월과 9월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서 평양대

손가락을 내흔들고 있다. 이밖에 마식령의 험한 산

악을 달리면서 심신을 단련해가는 산악달리기관광

이나 자전거관광, 무궤도

전차, 궤도전차, 지하철도

를 타고 평양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내를 돌아보는 전문관광들도

외국인들속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여러 축전행사들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8월과 9월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서 평양대

동강맥주축전이 련일 성황

을 이루었는데 이 나날 여

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식당배 《대동강》호와

유보도에서 이름난 대동강

맥주의 풍미를 한껏 맛보

며 멋있고 훌륭한 맥주,

《동방제일의 맥주》,

《아주 멋있고 훌륭한 맥주》,

여기에서 우승의 힘과 기적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너자동아시아컵 경기대회, 제17차 아시아마라ソン선수권대회,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제30차,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조선선수들이 거둔 우승의 비결인 것이다.

시상대의 높이하자 조국의 높이이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의 아들딸들은 일신의 명예보다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국가의 정치적지반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 선착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이룬다. 계급들, 계층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단결과 협력의 관계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지반의 본질적내용으로 되며 그것은 곧 사회주의 국가의 첫째가는 힘의 원천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지반은 국가의 계급적, 인민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며 국가활동에서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공화국은 렇도자를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가장 공고한 정치적지반으로 하고 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통지적단결과 협조가 최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단결이다.

오늘 국가의 정치적지반을 이루는 렇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단결로서 전체 인민이 렇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오직 자기 렇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기 렇도자와 한마음한뜻이 되여 전진하는 위대한 일심단결이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한석봉

고, 나라의 체육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학교체육과 군중체육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침대로 전민이 대중적인 체육활동에 광범히 참여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며 보람차고 희열에 넘친로 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교체육과 같이 소학교, 중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앞날의 체육강국을 떠메고나갈 전도유망한 새싹이 움트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인들은 체육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있는 기수라고,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뿐이며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는 것은 체육인들의 성스러운 임무라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그이께서는 체육인들앞에 나서는 파업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훈련장, 경기장들을 찾으시고 축구, 배구, 활쏘기, 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과 훈련을 보시면서 체육인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감독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 자기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창조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 국가적인 경기대회들을 조직진행하고 훈련경기, 겸열경기, 도전경기, 래경기를 많이 조직하여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 차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의 아들딸들은 일신의 명예보다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경기에서 메달은 개인에게 차례지지만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체육강국의 미래를 연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존엄을 감히 유린하려는 극악무도한 인권모략소동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성토문

자주로 존엄높고 군력이 막강하며 인간의 참된 삶이 꽂펴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인권모략 소동이 최근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이미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에서 재미를 본 미국은 감히 우리 수뇌부를 겨냥하여 『폭정에 의한 인권유린』이니 뛰니 하며 그 무슨 『특별재판』 상명단』까지 날조하여 발표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짓을 부려대고 있는가 하면 미의회에서 2004년에 조작되어 두번씩이나 연장이 된 『북인권법』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고아대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대북인권특사』라는자들이 런이어 남조선에 기여 들어 『북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이니, 『북의 셈법을 바꿀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니 하는 나발들을 쥐쳐대면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북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를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박근혜역도가 매일과 같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북인권탄압』이니, 『북주민의 참혹한 실상』이니, 『굶주림과 폭압』이니 하는 따위의 혐담을 마구 내뱉으면서 반공화국인권광대국의 인기를 올려보려 날뛰고 있으며 출개들은 그들대로 그 무슨 『인권범죄기록』과 『책임자처벌』을 떠들며 우리의 혼연일체에 조금이라도 실금을 내보겠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과 피폐역적폐당은 우리 해외근로자들의 『인권』이 이렇소 저렇소 하고 주제넘게 걸고들며 해당 나라들이 『북의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얼토당토않게 『강제로동의 산물인 북의 광물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느니 뛰니 하다 못해 지어 체육문화교류와 관광까지 가로막아야 한다는 악설까지 토해내고 있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천례없이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이러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론』이 미국내에서 공공연히 훌러나오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군사작전과 사상최대 규모의 실동훈련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감행되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폐폐당은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인권모략소동은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이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린 로그리하고 엄중한 국가태로 행위이다.

이것은 세기적인 조미핵대결에서 완전참패하여 악에 반칠대로 받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문제를 반공화국제재압살의 마지막주제로 삼으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선제타격의 합법적명분을 만들어보려 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

사실상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주적권리로서의 인권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도용되여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변색된지는 이미 오래다.

미국과 서방세계는 저들이 그 무슨 세계적인 인권의 창시자, 인권의 보호자나 되는듯이 자자하며 걸핏하면 『인권보고서』니, 『인권결의안』이니 뛰니 하는것들을 조작해내고 저들의 거수기노릇을 하는 국제기구들까지 동원하여 『인권옹호』를 표방한 갖은 정치적공세를 집요하게 벌리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을 파헤쳐보면 거기에는 인권에 대한 추호의 관심도,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오직 저들의 반동적가치판과 침략적야망, 폐권에 순종하지 않고 자주적대를 세우려는 반미, 반제적인 나라들과 정치인들,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무자비한 침략과 정치체로를 자행하기 위한 명분과 구실로 탐용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인권』의 진짜 개념이고 실제이다.

허울 좋은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국도로 철면피하고 야수적인 『인권재판판』들이 무지막지하게 휘두른 칼날에 의해 막대한 재난과 불행을 당한 나라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참상을 되새겨보라, 분노와 원한에 사무친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라.

파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드는 『인권』나발에 그 누구의 사상과 제도, 리념에 대한 리해가 있고 인간의 자주적권리와 자유, 삶에 대한 존중이 있으며 초보적인 인륜과 인도주의에 대한 고려가 있단 말인가.

오늘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감행하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이 가증스러운 날강도무리들의 침략적이고 위선적인 정체와 비렬한 속심을 날낱이 폭로하는 가장 집중적이고 상징적인 고발장이다.

우리는 공화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이 있고 우리 인민이 누리는 인권에 대하여 알고싶은 그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 땅 어디든지 와서 우리의 현실을 제 눈으로 보고 우리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를 제귀로 들으며 그에 토대하여 무엇을 말해도 말하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는 굳이 인권에 대하여 말로 광고하지 않는다.

한것은 우리의 정치철학과 국가정책이 바로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총지향, 총복종되고있기때문이다.

이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최상의 인권준중이 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는 우리의 현실이야 말로 정녕 인류가 꿈꾸는 인권실현의 참된 본보기이다.

령도자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그들의 운명과 리익을 위해서라면 혼신을 다 바쳐가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꽂혀나는 만복의 보금자리를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가꾸어가시는 나라, 천만국민은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믿고 심장을 바쳐 따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쳐가는 이 별천지에 대하여 『인권유린』이란 날조설을 펴드리는것자체가 절대로 용납 못할 치열리는 죄악으로 된다는것을 그래 미국의 위정자들은 순간이마다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온 나라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기풍이 차넘치고 그것이 너무 고마와 아이, 어른, 늙은이 할것없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하고 진정을 다해 받드는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을 두고 감히 『인권탄압』이라는 향설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렬하고 부끄러운 추태인지 박근혜역적폐당은 파연 알고나 있는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누구나 꽃같은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 태여나서부터 차례지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삶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기의 재능과 희망에 따라 보람찬 생활을 창조해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회가 완벽하

게 갖추어진 우리 공화국과 같은 리상적인 사회제도를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오늘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의 높은 구호를 제시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뿐아니라 보람찬로 동현장과 사회주의협동별마다에서도 일하면서 첨단지식과 문명의 탑을 쌓아나가는것이 이 땅 어디서나 범상하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다.

비록 제 자식은 없어도 근심걱정 모르고 밝은 웃음속에 깊음을 되찾고있는 양로원의 늙은이들, 량부모를 잊었어도 친부모보다 더 다심한 은정속에 무력무력 자라는 육아원, 애육원과 각급 학원 원아들의 행복 넘친 모습들파 인민의 가슴속에 순간이나마 그들이 질세라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국가중대사중의 최고중대사로 되여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목이 아프도록 『북인권』을 외워대는자들이 나불거리는 그 입에 왜 담지 못하는가.

우리의 원쑤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핵무력을 포함한 강력한 군력도 인민의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복된 삶을 지키고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모든 권리의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데 복종되고 있다는것을 미국과 박근혜폐당을 비롯한 『북인권』의 제창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하면 우리의 『인권』을 걸고들며 어찌구저찌구 하는것은 우리의 정의롭고 비약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것이 너무도 피로우며 그 눈부신 미래는 상상하기 조차 더욱 두렵기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 앞에 떳떳이 말한다.

우리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들, 없는 사실을 날조해 뮤포시키는 모략군들, 인권 아닌 인권을 주장하는 시정배들이 진정 참다운 인권에 대하여 알려거든 우리 공화국에 와서 배워가라.

참된 향심과 지성으로 인권을론하고 용납 못할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문제시하려거든 깡패의 나라 미국과 그 식민지인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실상을부터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미국식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권이란 곧 강권이고 금권이다.

오늘과 같은 문명의 최첨단시대에 부부색이 다르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혹인들이 여전히 동물취급당하는 참담한 인권불모지, 빈민과 실업자가 들키거나 고온장도를 헤아리며 살기위해 땅을 끊어내고 온갖 강도들이 활개치는 범죄의 천국, 1%의 있는자만이 모든 자유와 권리의 독점하고 99%의 없는자는 존엄이 깡그리 무시되고 말살되며 서로가 서로를 물고뜯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생지옥이 바로 인디안의 시체더미에서 솟아난 야만의 나라 미국의 정체이고 그것을 본고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이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리비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수리아 등 세계곳곳에서 저들의 불순한 애욕을 위한 전쟁범죄를 감행하여 수많은 희생자와 리재민을 산생시키고 종파간 알력을 격화시켜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한 미국의 반인륜적, 반인권적죄악을 인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반인권적실상을 그대로 빚은 식민지 남조선의 인권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정권』은 있어도 자기 인민이 아니라 미국을 섬기는 『정권』이고 권력도 사대매국노들의 특권적지위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기에 남조선은 날이 갈수록 수천만 근로민중의 자주권과 존엄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인권수령지대로 화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신』 독재자인 애비와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살자로 악명을 떨쳐왔던 박근혜가 페에 젖은

그 손으로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 쓴것 자체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불행이고 무서운 재난에 대한 예고였다.

페에 주린 사탄과 같은 박근혜의 득기가 물안개처럼 뒤덮여 단폐의 지우파도 같이 변해버린 오늘의 남조선을 보라.

하루아침에 수백의 애어린 생명들을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해놓고도 눈썹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절규마저 외면하며 『시체장사군』이니, 『종북』 세력이니 하고 원한서린 가슴에 대못을 박아온 행렬녀가 박근혜이다.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해 시위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다 못해 물대포를 발사하여 사경에 물어넣고 끌끌내는 죽음을 강요하였으며 지어는 장례식마저 제대로 할수 없게 막아나서는 반인륜적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살아서는 살길이 없고 죽어서도 문힐 자유마저 잃은 수천수만의 백남기농민들이 눈도 감지 못하고 웨치는 절규가 그때 박근혜에게는 들리지도 않는가.

인권유린의 왕초가 청와대에 도사리고있기에 치열리는 인권침해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특대형범죄들이 남조선사회에 국도의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고있다.

나이와 성별, 직업과 거주지에 가령없이 사회적대형참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죽음이 배회하는 무시무시한 땅, 자살을 권하는 희망없는 땅으로 불리우는 남조선이다.

철부지아이들이 제 친부모의 손에 살해당하고 늙은 부모가 자식들에게서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가 하면 피뢰군내에서는 사병들이 상관에게 얻어맞아 온 품에 피멍이 들고 배가 터져죽는것과 같은 인권말살, 폐륜폐덕 행위가 날마다 일어나 사람들을 전률케 하고있다.

국소수의 부자들과 특권층만이 활개치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개, 돼지로 취급당하며 가증되는 생활고 속에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여 세계1위의 『자살왕국』이라는 치욕의 대명사가 문폐처럼 달려있는 남조선이다.

정녕 박근혜역도야말로 남조선을 사람 못살 『망한민국』, 『헬(지옥)조선』으로 물어간 장본인이며 인권말살의 『녀왕』이다.

꿈속에서도 『북인권』을 넘불처럼 외워대는 알파한 그 입술에는 연지가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피가 진하게 묻어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자신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재난을 몰아오는 박근혜역적폐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에 이를 갈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거세찬 항거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박근혜는 그 더러운 주동으로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년전에 벌써 『유신』을 찬미하며 민생, 민권, 민주를 무참히 탄도질한것도 모자라 오늘까지도 남조선인민들을 헤여날수 없는 재난과 죽음의 구렁텅이에로 몰아넣고 있는 제년의 만고죄악에 대해서나 사죄하여야 한다.

박근혜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하며 온갖 특대형인권유린범죄들을 덮어보려 날뛰지만 막다른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아무나 물고들어지는 미친년의 헛나발질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内外에서 높아가는 항거에 바빠날대로 바빠난 박근혜년이 우리더러 그 무슨 『자유의 터전』을 찾아오라고 날마다 간드러진 목청으로 구걸질하지만 미친 도깨비년의 살기가

뻗쳐서 저마다 못살겠다고 하는 지옥 같은 그 땅으로 온전한 정신이 있다면 과연 누가 찾아가겠는가.

있다면 개인의 향락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향심과 의리마저 저버린 자들과 정신병자들, 미국과 피폐폐당의 마수에 걸려 『북인권』 나발을 불어대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게 된 가련한 인간쓰레기들뿐이다.

『인권』 거간군들의 마수에 걸려 남쪽에 끌려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대미문의 인간장굴 남조선을 저주하며 떠나온 제 고향산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도 박근혜는 그마저 악착하게 가로막으며 오히려 철창속에 몰아넣고있으니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인권교형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역적폐당이 금수보다 못한 한줌도 안되는 어종이며 중이들을 내몰아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조금이나마 신빙성을 부여해보려 모지름을 쓰고 있지만 백천가지의 거짓과 궤변도 단 하나의 진실앞에서는 무력하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고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칠수 있는 정의의 핵보검을 털어친것처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정의로운 우리 식의 인권옹위전으로 차차 없이 쳐갈기고 그 만고 죄악의 대가를 백배, 천배로 받아낼 시기는 바야흐로 도래하고있다.

당당한 핵강국, 존엄높은 인권옹호국의 이름으로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에게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미국은 반공화국인권범죄의 근원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조선민족앞에 세기를 두고 저지른 극악한 인권범죄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여야 한다.

자기의 힘을 빛내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함부로 통단하는 미국의 강도적전횡이 조선에서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감히 살대질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박근혜와 그 출개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 숨 쉴 곳이 없으며 가장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될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향심,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진보적인 민들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간섭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유엔인권리사회는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며 취한 불공정하고 비리성적인 모든 조치들을 철회하는것과 함께 불순세력들의 부당한 압력과 전횡을 배격하는것으로써 국제기구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할것이다.

<p

천하의 백지 박근혜의 잠꼬대 같은 《북핵해법》 타령

날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되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기절초풍한 박근혜의 남조선내부에 급격히 고조되는 핵전쟁공포증과 불안을 잡아워보려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북핵해법》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역도는 구린내나는 주동으로 《선제타격에 의한 핵무기 사용기도 저지》니, 《〈싸드〉의 조속한 배치》니, 《고강도제재와 압박의 지속적인 강화》니 하는 악설을 실새없이 내뱉으며 그것을 《북핵해법》으로 광고하고 있다.

미국의 제노라 하는 전략두뇌집단들도 방도를 찾지 못해 손털고 나았을 핵문제를 놓고 한갓 주구에 불파한 박근혜가 주제넘게 《해법》이니 뛰어 하며 입방아질을 해대는 것 자체가 양천대소할 노릇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세기를 두고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공갈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핵공갈과 위협을 계속하는 한 조선반도핵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도 모르는 박근혜년이 그 무슨 《북핵해법》을 떠벌이며 풀수없이 놀아대는 것과 관련하여 그 수작질이 얼마나 허황하고 가소로운 것인가에 대해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연이 그 무슨 《대북선제타격》이라는 것을 《북핵해법》으로 내든 것은 죽지 못해 안달이 난 천하바보만이 부려낼 수 있는 무모한 광기이다.

일반적으로 선제타격은 공격개시전 야에 상대방의 병력과 장비, 주요군사거점 등을 불의에 먼저 타격하여 공격능력을 최대로 약화시키고 작전과 전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군사행동으로서 그것이 전쟁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를 옳게 파악하고 승산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군사행동이다.

지금 박근혜당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격으로 《북핵제거》를 위한 선제타격각본인 《대량응징보복작전계획》이니, 《3축타격체계》니 하는 것까지 공개하며 분별 없이 놀아대고 있다.

지난 세기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핵의혹》을 내들고 그 무슨 《외파수술선제타격》을 떠들어댔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흔기를 들고 투항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

수만명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권안에 든 《인질》로 되고 있는데다가 내부를 파악하기 힘든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겠는지 도저히 가능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의 북침전쟁기도가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의 합동참모본부의 장리순진이 제41차 남조선미국 《군사위원회회의》와 《〈한〉·미·일 합동참모본부의 장회의》에 참가하여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제공》을 담보받기 위하여 쑥덕공론을 벌려놓았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얼마전에 막을 내린 해상합동군사연습에 이어 조선남해에서 다국적기뢰전훈련을 벌려놓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이것은 가뜩이나 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으로서 절대로 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그때와는 대비도 할수 없이 강화되었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는 핵강국의 전력을 당당히 들어섰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었다. 이미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을 통과하였고 핵타격수단들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우리는 사실상 자위를 위해 해놓을것은 다 해놓았으며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수 있는 강력한 정의의 핵마치를 거머쥐게 되었다.

우리에 대해 그 무슨 선제타격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미련한 자들의 단말마적객기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만일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감히 우리에게 핵선불질을 하는 경우 남조선 전지역이 완전불바다, 완전폐허지대가 되는것은 물론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이 몽땅 날아나고 미국본토가 아수라장이 될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선제타격은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에 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우리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무력의 전쟁수행방식을 선제공격으로 전환한지 오래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를 되는 형태와 형태, 형태에 대한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나타나는 경우 우리 식의 즉시적이며 무자비한 핵선제타격이 가해지게 되어있다. 특히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 수뇌부와 전략적시설들에 대한 흥악무도한 선제타격기도를 실현해보려고 악을 쓰는 대결악한들의 소굴인 청와대와 서울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초토화되게 될것이다.

지난 세기의 치렬한 조미군사적대결에서 쓴맛을 본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지금은 1990년대와 사정이 다르다. 북의 핵시설이 각 지역에 산재해있고 그것도 땅속깊이에 은닉되어있는데 핵장비들도 자유롭게 기동할수 있게 되어있어 군사적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종전의 강경태도에서 뒤걸음질치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도 전략적렬세에 빠져있는 박근혜당이 아무런 대응방책도 없이 감히 그 무슨 《대북선제타격》을 운운하고 있으니 그 무모함이란 수레바퀴에 달려드는 벼마재비의 만용을 짚져먹는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연은 《대북선제타격》이니 뛰어 하는 나발을 요란하게 불어 댈수록 저들이 우리의 핵타격권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곧 미국과 피뢰여적폐당의 종국적멸망으로 이어질것이다.

《싸드》로 우리의 핵타격을 막겠다는 박근혜연의 《북핵해법》은 거적매기를 쓰고 벼락을 막겠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망상이다.

미국상전의 옷섶에 매달려 연명하는 박근혜당의 미국산 무기에 대한 환상은 무지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싸드〉 만능론》에 사로잡힌 나머지 《북핵시험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느니, 《〈싸드〉로는 북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요격할수 있다.》느니 하고 쥐쳐대는 박근혜의 추래를 보면 실로 조소를 금할수 없다.

《〈싸드〉》 따위로 우리 식의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을 요격한다는것은 기술적으로 절대불가능한 허황한짓이다.

미국내에서도 북조선의 탄도탄들은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면서 높은 속도와 각이한 각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조건에서 《〈싸드〉》로 그것을 100% 요격할수 있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맥빠진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진행된 시험결과가 시원치 않아 적이 않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싸드〉》를 《미완성무기체계》라고 혹평하고 있다.

북이 1 000기가 넘는 미싸일을 보유하고있고 또 미싸일 한기를 격추하자면 최소한 2~3기의 요격미싸일이 필요하다.》는 피뢰군부것들의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불과 48발의 요격체만을 장비 한 《〈싸드〉》가 얼마나 맥을 추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로 되는것은 《〈싸드〉》가 임의의 순간에 방어로부터 공격으로 이행 할수 있는 2중용도의 장비이고 《〈싸드〉》의 전파탐지기는 그 탐지거리가 수천km에 달하는것으로 하여 중국과 로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있다.

《〈싸드〉》가 배치되면 남조선은 팜도보다도 더 전방에 위치한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전락되어 중국과 로시아를 비롯한 미국의 잠재적 적수들로부터의 군사적공격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빠져들게 된다. 여러 주변나라들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나서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것은 결코 빈 으름장이 아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군사전문가는 《〈싸드〉》가 배치되어도 남조선을 위해 가동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조선을 향후 발생할수 있는 핵전쟁에 끌어들일것이며 만약 미국이 중국, 로시아와 무력충돌할 경우 남조선은 가장 선차적인 타격목표로 될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연은 《〈싸드〉》 배치를 강행하는것은 그것이 무슨 《북핵해법》이 되어서가 아니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 을 합리화하고 집안에 승냥이를 끌어들여 동족을 기어이 해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박근혜당이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싸드〉》라는 피วล때문에 남조선은 미국의 영구식민지로 더욱 전락되고 무서운 핵참화를 들쓰게 된

다. 미국은 《〈싸드〉》에 의한 《안전보장》 등을 턱대고 미군유지비증액을 비롯한 온갖 강도적인 요구를 토글적으로 들고나오게 되어있으며 남조선은 대국들의 침예한 각축전장으로 되어 언제 어디서 정체불명의 핵미싸일이 날아올지 알수 없는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다.

남조선내부에서 《〈싸드〉》 무용론이 이급격히 퍼지고 《〈싸드〉》 배치반대투쟁이 갈수록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싸드〉》에 대한 환상에 물젖어 온전한 사고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박근혜년이 그 배치를 《북핵해법》으로 광고하며 《〈싸드〉》 배치당위론》을 부르짖고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싸드〉》와 같은 파월덩이를 끌어들여 우리의 정별의 핵타격을 피해보려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는것을 박근혜연은 알고나 헤엄비는것이 좋을것이다.

박근혜연은 《고강도제재와 압박》만이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성있는 《북핵해법》이라고 하는것은 초보적인 판별력도 가지지 못한 얼빠진 자들의 가소로운 망발이다.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소동에 매달려오면서 그만큼 쓴맛을 보고서도 박근혜년이 아직 그에 미련을 가지고 돌아치는것을 보면 천치는 역시 천치이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수소탄시험을 걸고 유엔 《제재결의》 제2270호라는것을 조작하였으며 박근혜당은 그 무슨 《독자제재》를 운운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폐쇄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박근혜당은 《먼지않아 그 효과가 나타날것》이라느니, 《6개월이면 제재효과가 나타난다.》느니 하는 따위의 희떠운 나발까지 불어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그 6개월기간에만도 전략잡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세상을 놀래우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려명거리의 초고층건물들이 하늘을 페지르며 치솟아오르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적 창조물과 현대적인 공장들, 생산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동족이 당한 혹심한 대재난에 쾌재를 부르는 비렬한들의 면상을 후려갈기며 함북도 북부부파복구전역에서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마련되고 있으며 서해의 만년제방우에서는 불과 몇년사이에 수십억 날바다를 막고 조국의 대지를 넓힌 승리자들의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강한 자주의식과 자립성을 체질화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대세력의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조남수

물론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대외경제관계를 가지는것이 유리하다는데 대하여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차단시키려고 발광한다고 하여 탄식하거나 주저할 우리 인민이 아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국가주권과 평화가 있으며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나갈수 있고 제힘으로 일떠설수 있다는것이 우리 신념이고 배짱이다.

원쑤들은 저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제재소동이 오히려 우리 인민을 이런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되게 하였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수십년간 자주, 자립, 자위의 가치밑에 디지고자져온 자주의 성세,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을 그 무슨 제재, 압박따위로 허물어보겠다는것이야말로 맨대가리로 바위를 들이받는것과 같은 우둔한짓이다.

박근혜당의 반공화국제재, 압박소동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결과만 빚어내고 있다. 피뢰들이 그 무슨 《독자제재》에 대해 고아대며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을 전면중단시킴으로써 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있던 수천개의 남축기업들은 졸지에 놀아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북의 《핵위협》을 막는다고 하면서 《〈싸드〉》 배치강행에 나선것으로 하여 《대북압박공조》 강화를 위해 내들었던 《균형외교》라는것은 풍지박산나고 남조선은 주변나라들의 핵타격목표로 되고말았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피뢰당국의 동족대결정책, 《대북제재》책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연에게 판별력이라는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의 현실앞에서 《대북제재》 놀음이 얼마나 부질없는짓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박근혜연이 가소롭게도 《북의 셈법》을 바꾸어보겠다고 놀아대고 있으나 사고력이 닭대가리수준이고 초보적인 산수문제도 풀줄 모르는 천하의 백치는 죽을 때까지도 핵방정식을 풀지 못하게 되어있다. 역적폐당이 반공화국제재, 압박소동에 매달려야 차례질것은 수치와 파멸밖에 없다.

굳이 《북핵해법》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를 핵보유에 떠민 근원부터 제거하는것이다.

미국과 피뢰당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 종식되지 않는 한 자주적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는 끊임없이 계속될것이다.

박근혜연은 그 말귀를 끌내 알아듣지 못한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북핵해법》 보따리를 꿈꿔지고 고스란히 저승길로 가는수밖에 없다.

요즘 박근혜가 《자유의 터진》이나 《희망》이니 하면서 《탈북》 선동나발을 불어댄다는데 산송장이 하는 너두리이다.

오물통에 파리가 날아든다고 세상 더럽고 치사한 인간쓰레기들이 도망쳐간 곳이 바로 남조선 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탈북》 나발을 불어대는 박근혜야말로 미친년이 분명하다. 미친개에게는 봉동이 짐질이상 없다고 했다.

그따위년을 두들겨팼는 심정으로 벼가을을 와 다파 다파 끌내고 쌀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가겠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분조장 리향금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더우기 박근혜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북남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전례 없는 북침전쟁연습과 제재책동으로 도전해나섰다. 심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어찌보려고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참수작전》이니,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이니 하는것들이 그 대표적 실

례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암살하기 위한 군사적 모의판과 전쟁연습소동을 연속 벌려놓고있는것은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질탕적으로 강화하고 있는것은 지극히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서 여기에는 문제

이번 다국적기뢰전훈련에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자기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입장이다.

오늘 공화국은 다종화된 핵공격수단들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섰다. 이제는 공화국이 임의의 공간과 작전수역에서 미국을 비롯한 침략세력을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팼을 수 있는 각종 전략, 전술유도무기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천하무적의 핵강국인 공화국은 천만대 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하나도 없다.

공화국에 도전하는 침략자, 도발자들은 하늘과 땅은 물론 바다에서도 백두산강군의 무자비한 불세례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내외호전광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원쑤들이

본사기자 김철호

산 송 장 의
네 두 리

박근혜의 운명 달리될 수 없다

10월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희망을 안고 《유신》파 쇼통치에 결연히 맞서 민주화의 새싹을 키워낸 추억과 함께 독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되새겨주는 의미 깊은 달이다.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짓밟는 반역 통치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하다는 것은 37년 전 심복 출개의 총란에 맞아죽은 남조선의 《유신》독재자의 비극적인 말로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돌아보면 《유신》독재자에 대한 사살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박정희 독재 《정권》의 통치 위기는 국도에 달하였다.

《유신》독재자의 장기 집권과 군사 쇼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식민지에 속성이 심화되고 폭력이泛權하는 암흑사회,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으로 되어버렸다.

당시 외신들이 전한 바와 같이 남조선 경제는 소리치며 무너졌고 그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물가와 세금

이 뛰어올라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파쇼도당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차단하지 않았다.

《유신》독재 광의 암만적인 탄압만행은 각계 총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그들의 대중적 투쟁은 통치 배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내부 모순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 특대 형부 정부 폐사건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의 화살이 저들에게 쏠리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시 《색 갈론》 소동에 매달리는 현 보수 집권 세력이 암말로 너절한 정치 간상 배무리가 아닐 수 없다.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현 남조선 집권자에 의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이루어온 활동을 벌린 통일애국인 사들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있으며 전쟁 반대, 평화 협정 체결, 미군 철수 투쟁에 나선 진보 세력들이 《종북 세력》으로 몰려 탄압당하고 있다.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결고들며 외세와 암합하여 감행되는 현 보수 집권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 동과

북침 전쟁 도발 소동으로 하여 북남 관계는 완전 도록 나고 조선 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극한 점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앉자마자 자기의 《공약》을 헌신 짜처럼 내던지고 정치를 제입 맞대로 해대는 현 집권자의 오만과 독선은 민생을 과파하고 사회의 갈등과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대 형부 정부 폐사건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의 화살이 저들에게 쏠리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시 《색 갈론》 소동에 매달리는 현 보수 집권 세력이 암말로 너절한 정치 간상 배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현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전출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 기세가 37년 전의 부마인민 항쟁의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을 등지고 독재 정치를 일삼는 부패 권력은 결코 무사할 수 없다.

김광윤

신뢰의 가면도 벗어던지고

요즘 늙다리 암개로 조롱받고 있는 박근혜가 창녀의 절개 타령 신물이 났는지 이제는 아예 쭉 벌거벗고 지랄 말 광하고 있어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북의 변화》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느니, 《제재와 암박, 봉쇄 만이 최상의 선택》이라느니, 《북주민들은 자유 〈한국〉으로 넘어 오라.》느니 뛰니 하며 《신뢰》라는 마지막 속곳마저 활 벗어 던지고 로끌적인 체제 대결, 《흡수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비단이부 자리에 기여를 때는 그래도 온갖 꿀벌린 《대 선 공약》를 과 《신뢰 프로세스》로 몸을 가리우고 60살도 넘은 주제에 숫처녀 행세를 하던 박근혜였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요조 속녀 행세를 해도 이 남자, 저 남자 같아 대던 창녀의 본성이 어디에 가겠는가.

박근혜는 《대화》요, 《교류》요, 《관계 개선》이요 뭐 요 하던 허울 좋은 가면을 벗고 《국민 행복 시대》라는 거치장 스러운 웃가지들을 훨훨 벗어 던진 채 태평양 건너 젊은 수개와 배꼽을 맞추고 다녔다. 공화국을 굴복 시킬 수만 있다면 미국 침대, 일본 침대, 유럽 침대 할 것 없이 마구 옮겨가며 창녀 노릇을 해도 무방하며 늙다리 처녀의 절개 따위는 헌 누네 기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박근혜지만 그래도 체면 때문인지 지금껏 《신뢰 프로세스》라는 속곳만은 꼭 불들고 있었다.

왜 서였겠는가. 그것은 《신뢰》라는 속곳이 사대 매국, 대미 굴종, 체제 대결, 《흡수 통일》을 부르짖는 육체를 가리우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진만 오늘 날에 와서는 그것도 거치장스럽게 되었다.

빼빼 마른 두다리에 음푹 들어간 눈窝, 쭈글쭈글한 가슴팍으로 행성의 온갖 바람난 수개들은 다 유혹하며 제재와 암박을 구걸해 봤건 만 공화국은 《변화》는 커녕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탄의 장쾌한 포성이 울리고 위성이 하늘을 날고 최첨단 핵 타격 수단들이 련이어 공개되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

말이냐.》, 《〈탈북자〉들도 살기 힘들어 다 이민 가겠다고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모르나.》…

박근혜는 북의 락원과 남의 지옥을 헷갈린 듯 락원에서 지옥으로 오라고 웨쳤으니 사람들의 조통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남으로 오시라.》는 이 말도 결국은 《남으로 오지 마시라.》, 《남에서 떠나가라.》로 들어야 바른 말로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반대로 들어야 할 박근혜의 말이라는 것을 실례로 다 들자면 끝이 없다.

몇 가지 실례로도 명백한 것은 침략적인 외세는 업어주고 피를 나눈 동족과 남조선인민들에게는 해만 주는 청와대 악녀의 거꾸로 된 발언, 거꾸로 된 행동은 죽어야만 고칠 수 있다.

옛날 동화 속의 청개구리는 제 어미가 죽어서 애거장 말만 하는 잘못된 버릇을 고쳤다지만 박근혜는 남조선인민들을 다 잡아먹고서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시종 거짓말을 하며 만가지 죄악만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요물, 특등 쟁쟁 거리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명성

거꾸로 들어야 하는 악녀의 넉두리

민의에 역주행하고 정의와 진실과는 반대로만 처신하는 박근혜의 거꾸로 기질은 언어 생활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사실을 반대로 묘사하는 그의 말은 그대로 들으면 리해할 수 있고 수긍도 안 되며 반대로 들어야 정답이 된다.

아래에 그 몇 가지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북은 봉괴한다》

빠진 소리들을 내지르고 있다.

공화국은 핵 무력을 종종으로 하여 군사력이 비 할 바 없이 강해 졌고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 일체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함께 두 큰 물 피해 지역의 전화 위복 창조를 비롯하여 경제와 인민 생활 향상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공화국이다.

그의 말은 반대로 《끄떡 없다.》, 《승리 한다.》로 들어야 수긍이 간다.

북은 왜 끄떡없고 승리하는가. 보는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적대 세력의 《고강도 제재》, 갖은 군사적 압박과 위협, 비렬한 《인권》 공세에도 조금도 굽하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면서 날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정책 작성가들은 《북봉피》를 기다리는 것은 오뉴월의 개꿈에 불과하다.》, 《봉피 조짐은 커녕 더욱더 결속되고 공고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는

판이다. 박근혜의 《북봉피》 타령이 높아 갈수록 공화국은 최후 승리의 언덕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리해하면 된다.

《북의 핵은 위협이다》

얼마 전 청와대 《국무 회의》라는데서도 박근혜는 《북의 핵은 〈한〉 반도를 넘어 세계에 위협이다.》, 《북핵을 이고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고 놔까렸다.

그의 이 말은 《북의 핵은 조선 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지켜준다.》로 정반대 해석을 하면 아무런 의심도 안 간다.

공화국의 핵은 침략의 핵을 막아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지켜주는 애국의 보검이다. 핵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 인류의 머리 위에 유일하게 핵을 들씌운 날강도 미제가

《〈싸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준다》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박근혜는 《싸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지금도 주절대고 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들어야 좋을까. 딱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즉 《〈싸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 그 것이다.

《싸드》의 전자파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고

은 최후 승리의 언덕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리해하면 된다.

그뿐이 아니다. 《싸드》는 미국의 미싸일 방어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 탐지 레이다. 요격 미사일은 조선 반도 주변 국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격분한 주변 국들에서는 《싸드》를 배치하면 남조선이 《첫 번째 핵 타격 대상이 된다.》,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강경 목소리가 련일 울려 나오고 있다. 《싸드》가 배치되는 남조선에 앞으로 국적 불명의 핵탄

《창조경제》, 《국민 행복 시대》

박근혜는 집권하면서 《창조경제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꿀벌린 소리를 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남조선인민들은 《창조경제》를 《망하는 경제》로, 《국민 행복 시대》를 《국민 불행 시대》로 비웃고 있다.

집권 공약과는 180°로 뒤바뀐 참혹한 현실은 거짓말의 능수, 재벌들의 편에서 서 중소기업들과 서민의 등가죽만을 벗겨온 청와대 악녀가 빚어낸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남조선에 부딪친는 근로 대중의 파업과 시위, 자살이 끊기지 않는 것이 지금의 남조선이다.

남조선 출판 물들에 《대 학생 알바지 옥》,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는 부모》, 《살고픈 생각 없다.》는 절망의 탄식 소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처럼 제기한 말과는 판판 다르게 경제를 망하게 하고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악귀이다.

옛날 동화 속의 청개구리는 제 어미가 죽어서 애거장 말만 하는 잘못된 버릇을 고쳤다지만 박근혜는 남조선인민들을 다 잡아먹고서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시종 거짓말을 하며 만가지 죄악만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요물, 특등 쟁쟁 거리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마땅하다.

21세기에 되살아난 20세기 독재의 망령에 예술가들은 저항할 것이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 플러스》에 의하면 한 문화 예술인이 14일 예술계에 대한 당국의 비렬한 탄압 음모를 폭로하였다.

그는 2년 전 박정희를 풍자한 연극을 창작하였다.

유명한 배우들이 《세월》 호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구호판을 들었다가 이번에 문화 예술계 요시찰 명단에 올랐다.

지배 권력에 대한 복종 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저들을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자본을 티

들이 여기저기서 날아들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러니 《싸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무기인가. 반대로 해치는 악마의 무기인 것이다.

《창조경제》, 《국민 행복 시대》

선 경제가 위기의 끝에 빠져 도무지 혜여 날 길이 없고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근로 대중의 파업과 시위, 자살이 끊기지 않는 것이 지금의 남조선이다.

남조선 출판 물들에 《대 학생 알바지 옥》,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는 부모》, 《살고픈 생각 없다.》는 절망의 탄식 소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처럼 제기한 말과는 판판 다르게 경제를 망하게 하고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악귀이다.

옛날 동화 속의 청개구리는 제 어미가 죽어서 애거장 말만 하는 잘못된 버릇을 고쳤다지만 박근혜는 남조선인민들을 다 잡아먹고서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시종 거짓말을 하며 만가지 죄악만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요물, 특등 쟁쟁 거리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명성

용한 예술가들이 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참으로 나쁜 《정부》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 독재 시대로 넘어 일제

식민지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명한 배우들이 《세월》 호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구호판을 들었다가 이번에 문화 예술계 요시찰 명단에 올랐다.

지배 권력에 대한 복종 등을 강요하고 있다.

《세월》 호는 기억되고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

치졸한 《정부》다.

《정부》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야당에 투표

한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가 결국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고 지배하고 있다.

이는 비단 예술의 영역 만이 아니다.

자본에 의한 겨렬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사회의 외곡을 만들어낸다.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오만한 《정부》는 예술가의 분노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

21세기에 되살아난 20세기 독재의 망령에 예술가들은 저항할 것이다.

본사기자



요즘 남조선현실을 보면 봉건시대의 력사를 재현한 한편의 흥미있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궁성에서 벌어지는 당쟁과 권력쟁탈전, 백성들을 탄압하는 라줄들, 도란에 빠진 민생, 그 모든것을 『거룩하게』 내려다보며 미소짓는 『녀왕』과 두녀인...

주인공이라 하는 『녀왕』은 박근혜이고 두녀인은 물론 최순실과 정유라이다.

그들판계는 참으로 묘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말동무사이』라고 했지만 따져보면 가족관계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애비 최태민과의 오랜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박근혜, 그러니 박근혜는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의 이붓애미였던 정유라는 박근혜의 손녀였다. 지금 『유신공주』 박근혜는 형식상 『녀왕』이고 그 『녀왕』을 뒤에서 『보필』 한답시고 조종하는건 민간인인 최순실이다.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일도 박근혜의 연설문을 검토하고 들어고쳐 주는 일이라고 한다. 꿈

《왕국》을 주무르는 세녀자

직접적 한 『인사』 문제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뻗치고 재산을 관리하고 불光彩주는 것도 최순실이다. 박근혜가 즐겨하는 것은 웃바꾸기도 최순실이 만들 어주고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간언하는 것이고 퇴임후 거처할 집마련에도 최순실의 검은 손길이 뻗쳐있다. 한마디로 박근혜의 모든 행동에는 최순실의 그림자가 얼른거린다.

인왕산자락에 위치한 『왕궁』 안의 남자들은 모두 박근혜와 최순실의 눈치만 보는 『환관』들이다.

그래서 남조선의 한 교수는 『이런게 수령청정이다.』라고 했다.

『수령청정』은 봉건사회에서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말로서 『임금이 나이어릴 경우에 왕대비가 임금을 도와 정사를 돌봄』이라는 뜻이다.

박근혜는 나이 어린 『임금』도 아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비틀거리며 걷는 얼굴에 주름이

잔뜩 간 할멈이다. 이붓딸의 『보필』이 참 대견해서인지 박근혜는 매사에 최순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사』를 봄은 격이다.

오래전 사이비목사인 최태민이 박근혜의 혼을 지배하였다면 지금은 그 딸인 최순실이 박근혜의 혼을 빼앗고 넋을 지배하고 있는 기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유라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세를 턱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다니는 『공주』다.

리화녀대에 『특혜』로 입학하고 강의 한번 안 받고도 학사특혜도 받았다.

지도교수가 맘에 없으면 에미를 내세워 바둑돌 움기듯 제격 바꾸어버린다.

사람들은 리화녀대가 정유리의 애미 최순실의 이름을 따서 『순실녀대』로 되었다고 한다.

『능력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모자란 애들 상대하기 더러워.』라고 인터넷에 올린 정유라의 글은 모든 서민들을 개,

돼지로 인식하는 완전한 『공주』의 거드름이다.

알게 뭔가. 지금 남쪽 세상을 휘젓고 조롱하며 다니는 그 『오돌찬 공주』가 혹시 박근혜가 낳은 『친딸』은 아닌지?

어찌되었든 그들 세녀자는 『망한민국』이라는 『왕국』을 다스리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정치도 주무르고 경제도 다스리고 문화와 체육 등 사회전반을 좌

지우지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세녀자에 의해 『국정』이 통락당하고 이리저리 끌리워가는 어둠이 절제 깔린 『왕국』의 슬픈 모습.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 때 리명박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일가에 의한 〈국정통단〉의 개연성이 있다.』고 뜻있는 예언을 남겼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려 『왕

관』을 자기 머리에 쓰려는 한갓 오그랑수가 아니었다.

오늘에 와서 지난 4년 간 갖은 악취를 다 풍겨온 박근혜 『정권』을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보니 그 알몸뚱이는 놀랍게도 세녀자가 통치하는 『왕국』이였다.

『절대적군주』인 박근혜와 그를 『보필』하는 최순실, 그리고 『공주』 정유라다.

세계 정치사에 일찌기 없었고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와 지역에도 없는 기이한 풍경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정말 정의도 없고 민주도, 백성들의 권리도 없는 암흑의 세상, 정치최후진 사회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그런 곳에 『탈북자정착촌』을 꾸리겠다, 『자유의 품으로 오라.』니 하

며 희롭게 놀아대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웃기는 일인가. 미래가 아니라 먼 옛 시대로 돌아가 살려고 그 혐악한 『왕국』에 가 살겠다고 할 사람이 미친 사람아니면 어디에 있겠는가. 세인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대상은 이런 쪽은 현실을 빚어내는 남조선 『정권』이고 박근혜 저 자신이다. 『망한민국』이라는 『왕국』의 부패몰락사는 세녀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사기자 김정혁



리화녀대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남조선대학생들

『결혼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위해 조그마한 정성이거나 기울이며 살겠다.』, 『지금은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유신』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제 애비가 심복의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한 후인 1979년 11월 청와대를 떠나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제법 『렬녀』 다운체 했던 그가 『사회를 위해 조그마한 정성』 그는 최태민과 계속 치정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것이 얼마나 도를 넘어섰으면 동생들이 1990년 8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태우에게 『최태민의 손아귀에서 언니를 구원

문이 들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를 입력하면 『사생아존재여부』, 『최태민과의 불륜관계』, 『약혼설』, 『비밀결혼설』 등 집권자의 부회방탕한 자료들이 무데기로 쏟아져나오는 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음탕한 행실에 대해 남조선주재 미국 현 당국자의 집권기간에 만도 무려 60%나 치솟아 남조선이 하나의 거대한 사창窟로, 패륜의 소굴로 화하였다.

오죽했으면 외신들까

지도 현 집권자를 『바람쟁이로파』, 『호색광』, 『칠가면을 쓴 향녀』로 애유조소하고 있겠는가.

속담에 『한번 가도 화냥 두 번 가도 화냥』,

『도적의 때는 벗어도 화냥의 때는 못 벗는다.』

사회를 오늘과 같은 패륜폐덕의 란무장, 부정부패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회세의 향녀, 색풀마귀인 박근혜는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철진

혼자 사는 그 이유

해달라.』는 청원서까지 보내였겠는가.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는 최태민의 사위 정윤희와도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남조선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현 당국자는 오래전부터 동생벌이나 되는 정윤희를 가까이하면서 그를 청와대안방에 까지 끌어들여 온갖 추잡한 짓을 다하였으며 정윤희는 역도를 등대고 특대형 부정부폐 행위와 『국정』 개입 등 고문장을 다했다.

2014년 4월 『세월』 호

침몰로 꽂같은 아이들이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한 초가 천금같던 그 시각 무려 7시간동안 박근혜가 밀실에서 정윤희와 딴장을 보고있었다는 것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의 인터넷

대사까지도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한국)의 라쓰 뿐진(짜리로씨야 때 황실을 통락한 엄청난 성욕을 가진 승려)인 최태민이 박근혜를 지배해 왔고 그 결과 최태민의 자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할 정도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특대형부정부폐 행위와 성추문사건

들이 전례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천하의 호색광녀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를 타고 앉아 부회방탕한 짓을 일삼기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것 없다.

애비이건 동생벌이건 가리지 않고 군서방질로 퍼풀이 상집해진 호색녀가 청와대를 타고 앉아 치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을 비롯한 아래것들도 가는 곳마다에서 성추행에 여념이 없고 남조선

군내에서는 성범죄진수가

청와대탕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검찰을 비난

남조선 『CBS』 방송이 13일 검찰의 불공정한 기소들을 비난하였다.

이날 지난 4.13총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33명의 『국회』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데 대해 언급하면서 방송은 검찰이 권력에 대한 로그적인 눈치보기를 힘으로써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와 중

진의원들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기소된 반면에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친박계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친박 무죄, 비박과 야당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개탄하였다.

이것은 당국이 련이 어려나오는 현 『정권』의 권력형 부정부패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기 위해 검찰로 하여금 표적칼춤을 추도록 사족한데 따른것이라고 방송은 까밝혔다.

방송은 『친박 무죄, 비박과 야당 유죄』로 인해 쏟아져 나오는 항간의 질타속에서 파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라고 뜻밖하게 말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본사기자

며칠 전 창광유치원 앞을 지나던 기자는 깔깔거리며 놀음에 팔려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펼쳐 걸음을 멈추었다. 이 땅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전만 이날 따라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류달리 가슴을 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출판물에서 읽은 불쌍한 남조선 어린이들에 대한 기사 때문이었으리라.

『때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라는 어린이들의 공포와 불안에 가득찬 아즈러운 비명소리, 웃음소리가 도처에서 철새 없이 울려나오는 남조선에서는 얼마 전 인간이 아니라 야수로 변해버린 부모가 6살 난 자식을 때려 숨지게 해놓고 시체를 불태웠는가 하면 친아버지가 동거하는 너자와 함께 11살 난 딸을 2년나마 감금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끔찍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이를 두고 남조선 언론들이 『친부모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건들은 사회 전반에 숨어있는 병폐증의 하나』라고 하면서 황금만능과

늑발은 아이들과 벌림 받은 아이들

약육강식이 법칙으로 되어있어 초보적인 인륜마저 깡그리 말살된 남조선 사회를 개탄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1만 1 715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1년 6 058건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추운 겨울에 밤가벗겨 벌을 세우고 두살짜리 아이가 운다고 입에 손수건을 물려 방에 가두는 것과 같은 어린이 폭행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나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으며 아즈러운 비명소리가 끊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지막으로 잇닿은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행복과 기쁨만이 남실거리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새 거리를 일떠세워도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어주고 몇 명 안 되는 섬마을 학생들을 위해 분교를 세워주는 나라,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공원들이 꾸려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끌피우는 나라,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공화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천국인 것이다.

언젠가 TV에서 본 복받은 세쌍둥이들이 생각난다. 세상에 고고성을 터친 순간부터 평양산원과 애육원에서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욱 크고 은혜로운 사랑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행복동이들의 모습을... 세쌍둥이 한명당 평양산원에서는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원이, 애육원에서는 한명당 3명의 보육원들이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니 이들 세쌍둥이들은 수십 명의 『시중군』들의 항시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는셈이다. 얇은 아이가 생겨도 담당보육원이 아이와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해주니 친어머니는 밤을

새워 자기의 아이를 돌보아주 는 보육원의 수고에 고마움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친어머니 보다 더 다심한 사랑속에 아 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해맑은 웃음.

하기에 공화국의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 남조선 『미래 문제 연구소』 실장은 『이북은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는 신비의 황홀경』이라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라의 귀중한 모든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며 아이들이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세상에 부럽없어라』, 이는 이북민 중모두가 터치는 가식없는 진정의 목소리이다. 상상만으로도 그 신비경에 절로 찬란이 나오거늘 그 신비의 세계에서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어린이들이 어찌 세상에 부럽없다고 목청껏 노래하지 않으랴. 북이야말로 행성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의 천국, 행복의 동산이다.』

진정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 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라고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떠나 아이들의 기쁨 넘친 웃음을 생각할 수 없다.

얼마전에도 공화국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 지역 학생 소년들이 송도원 국제소년단 애영소에서 즐거운 애영을 하게 된다는 후대 사랑의 새 전설이 꽂혀나온 나라이민들의 기쁨을 뜨겁게 해주고 있다. 뜻밖의 큰 물파해로 한지에 나았는 인민들을 위해 거창한 피해복구 전투를 조직하여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해주고 도 피해 지역 아이들의 마음속 아픔과 눈물을 가셔주고 기쁨과 향만을 안겨주려고 국가적인 조치로 행복한 애영생활까지 조직해준 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후대 사랑이 있

어 해방 후 처음 보는 엄청난 재난을 당한 북부피해지역의 아이들이 세상에 소문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애영소에서 마음껏 웃고 뛰며 즐거운 애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는 어린 생명들을 눈屎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디찬 바다 물속에 수장해버리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설과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식에 접한 피해 지역인민들은 세상에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았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은 많아도 그 아들딸들이 국가의 손길에 떠받들려 즐거운 애영소로 간 실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사변적인 일이라며 저마다 감동을 터치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넘쳐나는 복 받은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와 암흑의 세상에서 벌림 받은 아이들의 애처로운 비명소리, 이것이 북과 남의 어린이들을 통해 본 너무도 판이한 두 제도의 모습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서 발표



사나운 이발을 드러낸 미친 정부

미친개가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사나운 이발을 더욱 드러내보이는 법이다.

최근 국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남조선 보수당국은 그 출로를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더욱 열을 올리는데서 찾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보수당국은 이른바 『리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걸어 구속하였던 이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비롯한 핵심 인물 3명에게 『북한 양고무죄』, 『리적 표현물 소지죄』를 들고 죄위 징역형을 언도한데 이어 서울 주재 미국대사에게 징벌의 칼세례를 안긴 김기종 주민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지난 보수당국은 2008년 대학시절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북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느니, 인권 후진국이니 하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북남 협력 교류가 대북 폭주기인가, 폭발기인가』라는 내용으로 리명박 보수 『정권』을 비평한 논문을 발표한 주민을 『리적 단체 가입』이니, 『북의 사상을 학습, 전파한 혐의』니 하는 터무니없는 죄를 마구 뒤집어씌워 징역형을 가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현시기 남조선 보수당국이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각계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 및 살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피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당국의 파쇼적 팔관은 궁지에 빠질 때마다 써먹는 상으로 남조선 사회를 반 『정부』

투적수법으로서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어떻게 하나 보면하고 파멸의 함정에서 혼여나기 위한 불순한 망동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친미사대와 파쑈독재,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나라와 민족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보수 세력은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매일같이 펼쳐지는 반 『정부』 집회장들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등의 격노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온 남조선 땅이 보수당국의 반역 정책을 폭로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되고 있다.

각계층 인민들로부터 벌림을 받은 현 집권자의 몸값은 보수 한데 이어 서울 주재 미국대사에게 징벌의 칼세례를 안긴 김기종 주민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지난 보

파쑈와 동족대결에만 매달려온 박근혜의 정치적 운명은 지금 바람 앞의 초불신세이다. 여기에 최근 드러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하여 더욱 혼여나을 수 없는 곤궁에 빠진 현 집권자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 언론들은 『총체적 국정 실패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민 분노의 폭발』이라고 일제히 전하고 있다.

악에 반친 박근혜 보수 세력은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땀대로 돌리고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 최악의 위기를 수습하고 권력을 유지할 흥계 밑에 살벌한 파쑈 폭압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보수 집권 세력의 파쑈 탄압이 『종북 세력』, 『불순 세력』 척결의 간판 밑에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반역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친북 좌파』로 몰아 가차 없이 탄압하고 인민들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방법

투쟁의 무풍지대로 만들어보려는 것이 박근혜 보수 세력의 흥악한 속심이다. 그러나 그 더러운 목적을 간파 못 할 남조선인 민들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남 관계 개선과 자주 통일을 주장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 수 없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남조선의 자체 참한 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박근혜 보수 세력이 독재와 폭압으로 위기에서 혼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파쑈적 정체와 궁색한 물걸물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김연희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가 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들추면 들출수록 각종 의혹들 만이 증폭되는 속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정확한 해명, 그 주모자 처벌과 함께 전국 경제인련 학회(전경련)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경련은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을 비롯한 19개에 달하는 대기업들을 강박하여 미르재단에 4 350여만 US\$, K스포츠재단에 3 400여만 US\$의 기부금을 내도록 하였다고 한다.

알려진 것처럼 전경련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남조선 경제인들의 활동에 필요한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미명 하에 출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서 전경련은 혁대로 『정부』와 재벌의 유착 관계를 실현 시켜주면서 보수 집권층의 반인민적 통치를 돋으

로 뒤받침하고 재벌들의 리익을 확보하는 데 몰두하여 왔다. 이런 것으로 하여 전경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경유착의 통로』로 각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은 후 전경련은 『어버이련』을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단체들은 물론 『탈북자』를 부각시키고 소통과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박근혜 『정권』과 그의 대변자, 나팔수 역할을 하는 보수 매문지들의 추악한 언론 보도 활동에 대한 고발이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 언론들은

입만 열리면 동족대결의 침방울을 텅겨대는 박근혜와 통일부 등의 악당과 케빈을 엉무새처럼 받아와 우면서 지면과 인터넷 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황당한 『신뢰 프로세스』에서 『통일대박』을 쥐어치다가 어리석은 개꿈으로 지탄받아 골적으로 『북봉피』를 고아하는 박근혜의 망발들이 보수 언론들에 던져지게 계발리는가 하면 다계단으로, 다발적으로 비약하는 공화국 현실에 『그늘』을 지어보려는 모략여론전이 우심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 뉴스』, 『KBS』, 『동아일보』 등은 실체도 없는 『교민 소식통』, 『현지 소식통』이라는 유령 출처를 내대며 있을 수도 없는 『북인권 문제』까지 날조하여 반공화국 모략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오늘자 북관련 기사 랭킹』에 『오보』라는 말이 류행으로 나돌겠는가.

언론은 정의와 진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것을 버렸을 때 그 언론은 자기의 명을 다한 것이다.

이 전경련을 동족대결과 반인민적 통치에 리용하며 치졸하게 사복을 채운 정치 협잡에는 없었다. 박근혜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내 누리당』의 비박계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물들도 동조해나서고 있어 현 집권자를 더욱 더 당황케 하고 있다.

서 더 많은 돈을 움직이는데 더러운 속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패왕초가 청와대에 좌리를 둘고 앉아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유신』 독재자의 후예에 의해 정경유착이 더욱 만연되고 있으니 남조선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 살든 개의치 않고 자기의 리속을 위해 청와대의 돈주 머니 불구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전경련은 해체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근원인 청와대 안방 주인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독재 권력의 치부수단 - 전경련

예제 까지 돈을 대주는 등 현 『정권』의 통치에 적극 추종한 것으로 하여 전경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경유착의 통로』로 각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폭로된 것처럼 전경련은 현 집권자가 퇴임 후 운영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도록 강요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애당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돌격대,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등으로 비난하면서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속에 애당인 정의당이 70여명의 『국회』 의원들이 서명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물들도 동조해나서고 있어 현 집권자를 더욱 더 당황케 하고 있다. 관권자료들을 폐기한다 하며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분주함을 펴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을 털에 키질하는 격으로 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남조선의 혁대 통치 배들 치고 전경련을 치부의 수단으로 써먹지 않은 자는 없다. 하지만 박근혜와 같